힘내라 광주 전남
유 · 무선통신공사 부문
전기·포장·시설물 부문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업
KUKMIN 주식회사 국민

전 남 매 일
www.jndn.com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제8503호 대표전화 (062)720-1000

광주스타기업 남양조명공업㈜ 이
㈜리치룩스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RICHLUX
(주)리치룩스
www.richlux.kr / 062-224-3333

“민항과 군공항 별개”…시·도 갈등 격화

전동호 도 건설국장, 행감서 “이전 약속 지켜야”
“호남고속철 공항 경유 2023년까지 기다리면 돼”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간 갈등이 연일 격화하는 모양새다. 광주시장 직속 시민권익위원회가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과 연계해야 한다고 못박자, 전남도는 두 공항 이전은 별개라며 맞받아 치는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12일 열린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려는 광주시의 움직임에 대한 원칙을 묻는 문행주(화순1) 의원의 질의에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은 별개다”고 못박았다.

전 국장은 “국가나 사회, 가정이나 개인 모두 대화와 이해가 필요한데,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군 공항 연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대화와 이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발표하고 약속한 광주 민간공항의 2021년 이전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이어 “정부도 지역여론을 우선시하는 만큼 지역이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에 민간공항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약속과 협약서대로 민간공항이 오면 군공항도 풀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 국장은 또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2023년이면 광주공항은 제주노선만 남는다”며 “줄 사람이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2021년 이전이 되지 않으면(2023년까지)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광주시가 기존 협약을 파기, 양 공항의 병합이전을 고수하고 전남도도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향후 수년간 민간공항은 물론 군공항 이전 논의도 어려울 것이라는 강경 기조로 해석된다.

전 국장은 특히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이나 국가기본계획 등에 광주공항 무안 이전이 모두 반영돼 있다”며 “무안공항이 서남권 중추공항임에도 정부에서 지역여론을 빌미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본부를 만들고 28명을 투입하는 등 사활을 걸고 여론을 형성, 노골적으로 민간공항과 군공항 병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은 무안군만 지엽적으로 대응할뿐, 군공항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는 등 논리적 대응과 사업적 대응이 현저히 기울어져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전 국장은 “대응과 조직편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광주 군공항은 민간공항과 연계돼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광주시민권익위의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여론조사’ 결과,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79.5%에 달했다.

시민권익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는 도와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후 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전남도·국방부·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전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권고안을 제안받은 광주시는 시민 의견과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한 달 안에 시민권익위에 실행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근산 기자

마스크 미착용 오늘부터 과태료

최대 10만원…“턱스크 안돼”

13일부터 대중교통 또는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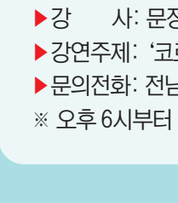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민 기자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하루 앞둔 12일 오전 광주시 북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용봉동의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알립니다

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 ‘13강’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전남매일 제2기 CEO경제아카데미’ 열세번째 강연이 오는 16일 라마다플라자 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사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입니다.

문 특보는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했으며 한국평화학회 회장과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남북문제 최고 전문가로 손꼽힙니다.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로 재직중인 문 특보는 미국 켄터키대학(University of kentucky) 등에서 10여년간 교수로 봉직하며 60여권의 국·영문 편·저서를 저술하고 국제 저명학술지와 각종 논문집에 국·영문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자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비핵화 및 핵확산방지 지도자네트워크(APLN) 공동의장을 맡아보는 등 국제정치부문에서도 탁월한 식견을 갖췄습니다.

한반도와 국제정치 전문가인 문 특보의 특강은 미국의 대통령선거 이후 새롭게 전개될 미중관계속에서 한반도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할지 함께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CADEMY

▶일 시: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오후 7시
▶장 소: 라마다플라자호텔 4층 대연회장 (상무지구)
▶강 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강연주제: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신냉전구조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문의전화: 전남매일 관리국 (062-720-1012)
※ 오후 6시부터 17층 파라뷰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 후 7시 강의

전남매일

광주 그린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오늘 지정

광주시가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다. 광주시가 그린뉴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45에너지자립도시 실현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한다.

심의 안건에는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광주)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경남) ▲이산화탄소 자원화(울산) 등 3개 신규 특구계획과 ▲세종 특구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계획 등 총 4개 특구사업이 상정돼 있다. ▶2면으로 이어짐
/황애란 기자

주말& ▶10·11·12·13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한빛원전 3,4호기 관련 지역주민들께 드리는 사과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빛원자력본부를 사랑해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 한빛원전 공극 등 일부 부실공사 및 장기간 발전정지로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빛3,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은 건설 당시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실시공 문제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 생각합니다. 한수원은 이러한 과오와 소통·공감이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0여 년간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군과 지역 주민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수원은 발견된 결함에 대한 최상의 조치를 통해 지역에서 신뢰받는 안전한 한빛3,4호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수 과정과 결과 등을 지역 주민 여러분과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은 한수원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간의 관심과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안전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빛3,4호기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투명한 소통으로 믿을 수 있는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임직원 일동